

고 엘레나 전도사님 장례식을 준비하며

화요일날 경찰입회 하에 사망원인 확인이 나면 스테피가 시신을 교회로 옮겨오기로 약속을 하고 병원에서 스테피와 니꾸(전도사님 큰아들 둘째아들)와 작별한 후 월-화요일에 있을 1박2일 아버지학교 1-3기 스텝 상반기 컨퍼런스 시장을 제이와 시모나와 성민이와 부지런히 보고서 곧바로 부랴부랴 교회로 돌아왔습니다.

교회도착하니 9명의 자녀들과 릴리아나 자매와 마리아나 자매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서로 껴안고 울음을 터트리며 인사를 나누었습니다. 짐을 대충 정리하고 8시에 철야기 도회를 조금 일찍 소집을 했습니다.

1. 장지부터 확인을 하고 고스띠 아버지와 어머니가 정교회 신부를 만나서 땅을 신청을 했고 250레이를 토요일날 땅값으로 내고 영수증을 가져가면 땅을 기증받게 됩니다. 묘지를 파는 사람을 싸미 아버지와 제이와 반담과 고스띠 매형 4사람을 선정하여 수요일 아침 이른 새벽 5시에 준비를 하도록 결의했습니다.
2. 장례식 리무진을 렌트하는 것을 고스띠가 맡았습니다. 마지막 가는 천국길을 면 소재지에서 지금까지 보지 못했던 하늘나라 백성 천국가는 장례식이 어떤 것인지 보여주기 위한 것이었고 유가족들의 마음을 조금이라도 위로하고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기위한 것이었습니다. (대부분 동네 사람들은 마차에 시신을 실고 가지만)
3. 나무 십자가를 무덤에 세우는 대신 돌 비석으로 사진을 넣어서 준비하기로 했습니다. 역시 고스띠가 맡아서 준비하도록 했습니다.
4. 입관식을 위한 장례절차는 루마니아 식을 따르기로 했습니다. 병원에서 시신을 가져올 때 목욕과 화장을 병원에서 해서 입관한 후 교회로 옮겨야 한다고 마리아나가 말했습니다. 하여 마리아나와 릴리아나가 이미 사온 관을 다시 가지고 부카레스트로 올라가야 합니다. 비오렐 형제가 자기 봉고차에 실고 가기로 했습니다.
5. 발인식과 하관식은 부카레스트 노회장 에밀 메쉬떼라거 목사님께 부탁을 드렸습니다. 주보를 만들건지 어떤 순서를 넣을지에 대한 준비도 고스띠가 맡아서 전화를 드리고 대화 하기로 했습니다.
6. 영정 사진은 고스띠와 성민이가 찾아서 프린트하여 액자에 넣는 작업을 하기로 했습니다.
7. 화관은 하나만 준비하되 고스띠가 올테니짜 읍에서 주문하기로 했습니다.

8. 손님들이 관에 놓는 꽃들은 너무많이 차서 방해가 되지 않도록 적당하게 그때 그때 꺼내서 적당량만 놓도록 했습니다.
9. 고인이 입고 갈 옷은 검은색으로 입어야 한다고 해서 사모님과 마리아나가 올테 니짜 읍에가서 사오기로 했습니다.
10. 화요일날 시신이 도착하면 유치부실에대 모시기로 하고 수요일 아침 발인예배때 교회로 옮기는 것으로 했습니다.
11. 화요일 날 유가족들이 오면 숙식할 곳과 식사준비를 위한 매뉴를 정하고 필요한 재료들을 위해 시장을 마리아나와 릴리아나 그리고 사모님과 꼬스띠와 비오렐이 올테니짜 읍에가서 토요일날 하기로 했습니다.
12. 수요일 아침 식사 준비는 마리아나 사춘이 와서 돕기로 했고 매뉴를 정하고 필 요한 재료들 아침 시장은 토요일날 봉고차 편에 부탁하기로 했습니다.
13. 수요일 점심 식사 준비 매뉴를 정하고 필요한 재료들을 올테니짜 읍에서 사되 없으면 부카레스트 매뜨로에 가서 사오기로 했습니다.
14. 장례식에 올 형제 자매님들을 위한 연락은 아빠가 담당하기로 했습니다.
15. 발인예배를 위하여 모두 떠나면 여전도회 자매님들과 사모님이 교회에 남아서 점심준비를 하도록 했습니다.
16. 발인예배가 끝나면 9명의 자녀들은 120명 정도 점심식사를 위한 테이블 정리를 빨리 해 놓고 하관식에 오도록 결의했습니다.

모든 결의를 마치고 찬양을 했습니다. 발리 머리를 쓰다듬으며 “엘레나 전도사님이 너를 제일 많이 사랑하셨는데 이제는 더이상 속삭이지 말고 공부 열심히하라”고 아빠가 눈물 로 격려를 했습니다. 옆에 앉아있는 꼬리나를 보고 “너도 제일 사랑을 많이 받았었는데 꼬리나도 이젠 속삭이지 말고 학교생활에 열심을 내야지?” “막내 니꼴라에야 너도 하루 속히 청소년기 방향을 끝내고 맘잡고 믿음생활 잘해야지?” 눈물로 아빠가 위로하고 격 려를 했습니다. 서로가 할일이 많아서 11시에 아빠의 기도와 축도로 갯세마네 가족공동 체 철야기도회를 마쳤습니다.

장례준비에서 마칠때까지 사단의 역사를 잠재우시고 장례식을 통하여 유가족들이 회개 를 하고 하나님 품으로 돌아오기를 간구했습니다. 루마니아 사역 첫번째 제자를 맨먼저 하나님 품으로 보내는 것이 순서가 안맞지만 아버지의 뜻이 있는줄로 알고 순종하기로 했습니다. 때론 농담삼아 부카레스트를 오고가며 차안에서 “엘레나 전도사님 오늘 저녁 철야기도회때 천국갈까요? “전도사님과 저는 갯세마네 밀알이 되야하는데 면소재지 공 동묘지에 묻일 각오가 되있어요?” 서로 웃으며 농담하며 예수안에 형제 자매된것을 감

사하며 하루의 고된 사역들도 기쁨으로 승화시키며 천국을 그토록 소망했었는데 박선교사보다 먼저 가신것이 순서에 맞지않아서 아직도 박선교사는 믿어지지 않습니다.

기도와 격려와 눈물로 함께 레슬링하여 주시는 중보기도 식구들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장례식을 마치고 인사드릴게요. 2014년 6월 13일 박창수 심은식 선교사 드림